

달빛동맹 ‘軍 공항이전’ 공동 대응

‘광주-대구 민관협력위’ 가동

88고속도로 확장·광주-대구 내륙철도 등 20개 사업 본격화
위원 30명 구성...지방분권 정책 강화 마련에도 양지역 협력

영·호남을 대표하는 광주시와 대구시가 민관협력위원회를 중심으로 ‘달빛동맹’ 강화를 통한 영호남 상생 사업을 본격화한다.

양 도시는 군 공항 이전과 88고속도로 조기 확장, 광주-대구간 내륙철도 건설 등 상호 협력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어 공동 발전의 기폭제가 될 전망이다.

19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달빛동맹 민관협력위원회가 지난 18일 공식 출범함에 따라 모두 23개 아젠다사업 중

이미 완료한 상대 도시 ‘시민의 숲 조성’ 등 3건을 제외한 20개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또 수도권 중심의 정부정책에 맞서 지방분권 강화 정책 마련에도 힘을 합하기로 했다.

민관협력위원회는 양 지역에서 각 15명씩 모두 30명으로 구성됐으며, 공동 위원장은 호선으로 서영진 광주문화재단 대표이사(광주), 진영환 대구상공회의소 회장(대구)이 선임됐다.

양 도시는 특히 군 공항 조기 이전에 힘을 모을 것으로 보인다. 광주시와 대

구시는 지난해 국방부에 군 공항 이전 건의서를 제출했으며, 올 하반기 내에 이전 적정성 평가가 이뤄질 전망이다. 특히 도심 군 공항 이전을 위해서는 국가 지원이 필수적인 만큼 광주와 대구는 공동 대응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양 도시는 또 지난 2008년 11월부터 8년여 동안 지루하게 이어져 온 88고속도로 확장 사업이 올 연말 완공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이와 함께 현재 정부에서 수립중인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16~2025년) 내 전반기 사업에 영·호남의 시간적 거리를 좁힐 광주-대구간 내륙철도(광주~담양~순창~남원~함양~거창~대구) 건설 계획이 포함될 수 있도록 공동 노력할 방침이다.

양 도시는 이외에도 3D융합산업 육성, 동서 수속고속도로 조성 및 수순연료전

지차 시범 운행, 그린·신재생에너지 분야 육성, 달빛 투어·체육 교류, 무등산·팔공산 탐방프로그램 운영, 민주항쟁 정신고취를 통한 동서화합 등 다양한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미 성과를 낸 협력사업도 있다. 광주와 대구는 상대 도시에 시민 기념숲을 조성했으며, 광주-대구 연계협력권 발전 종합계획 수립, 특화공연 공동제작 및 교류 사업도 완료했다.

강신기 광주시 기획조정실장은 “달구벌 대구와 빛고를 광주의 앞 자를 딛 ‘달빛동맹’을 책임질 민관협력위원회가 출범함에 따라 영호남 대표도시의 공동발전이 기대된다”면서 “지역 감정이나 지역 분열이라는 말 자체가 사라질 수 있도록 영호남 화합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시민의 날 ‘임을 위한 행진곡’ 합창

내일 靑문화전당 앞 행사...대구 합창단 축하공연등 시민 한마당

21일 열리는 광주시민의 날 행사에서 최초로 ‘임을 위한 행진곡’이 합창된다.

올해 제50주년 광주시민의 날 행사는 5·18민중항쟁의 정신을 기리기 위해 오는 21일 오후 5시18분에 3000여명의 시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다. <관련기사 22면>

특히 행사가 최초로 옛 전남도청(국립아시아문화전당 5·18광장) 앞에서 열리며, ‘임을 위한 행진곡’도 광주시립교향악단의 연주와 518명으로 구성된 시민합창단의 합창으로 울려 퍼진다.

여기에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 성공 개최를 기원하는 서포터즈 발대식이 열리며, 대구시립합창단의 축하공연과 신명

나는 연극마당 등 시민 한마당 축제도 펼쳐진다.

이번 ‘시민의 날’은 올해로 35주년을 맞는 5·18민중항쟁을, 광주정신 구현을 위해 제정한 광주인권선포 3주년의 기념행사와 연계해 축제의 장으로 치러진다.

이어 광주발전을 위해 노력한 광주시민 대상 수상자에 대한 시상과 함께 명예 광주시민증 수여식이 열린다. 이어 2부 문화행사로 는 놀이매 신명의 오월극 ‘가세~대동세상’으로가 연극과 음악이 포함된 마당극으로 펼쳐지고, 씨쏘뮤지컬 컴퍼니 창작극 ‘광주는 인권헌장이 있다’가 노래로 불려진다. /채희종기자 chae@

법령 제·개정시 ‘일자리’ 최우선 고려

고용부, 내년부터 ‘지역균형인재 고용영향 평가’ 의무화

내년부터 법령을 제·개정하거나 정책을 수립할 때 지역 일자리 문제를 의무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19일 열린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위원회에서 ‘지역균형인재 고용영향평가 시행방안 수립계획’이 심의,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는 중앙부처 및 광역자치단체가 법령을 제·개정하거나 주요 정책을 수립할 때 지역 일자리 증감, 지역간 인력이동 등 지역인재의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의무적으로 평가, 반영토록 한 제도다.

지난해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법’ 제정과 함께 도입됐다. 우수한 지방인재들이 지역 내 좋은 일자리에 취업, 정

착할 여건을 조성하자는 취지다.

지역균형인재 고용영향평가는 ‘평가대상 선정→평가서 작성·제출→평가서 검토→정책 반영 및 모니터링’의 4단계로 이뤄진다. 평가대상 선정과 관리는 교육부가, 평가서 작성은 소관 부처와 지자체가, 평가서 검토와 정책 반영 및 모니터링은 고용부가 맡는다. 한국노동연구원 고용영향평가센터는 부처 및 지자체에 평가서 작성 컨설팅을 제공한다.

고용부와 교육부는 9월까지 대학, 교육청, 기업 등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평가지침을 마련하기로 했다. 연말까지는 관계부처와 지자체를 대상으로 순회 설명회를 연 뒤 내년부터 시행한다. /연합뉴스



일그러진 소녀상에 비친 일그러진 日 역사... 위안부 소녀상에 ‘말뚝테러’ 한 일본 정치인 스즈키 노부유키(鈴木信行)씨가 19일 경기도 광주시 퇴촌면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보금자리 나눔의집에 소포로 보낸 ‘제5종보급품’(第五種補給品)이라는 글자가 적힌 용기 속 일그러진 소녀상과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글자가 적힌 작은 말뚝. /연합뉴스

檢 ‘포스코 비자금 조성 의혹’ 정동화 전 부회장 소환

정준양 전 회장 소환 초읽기

포스코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조상준 부장검사)는 19일 정동화(64) 전 포스코건설 부회장을 소환 조사했다.

정 전 부회장은 오전 9시30분께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했다. 검찰은 정 전 부회장을 상대로 포스코건설 임원들에게

국내외 공사현장에서 비자금을 조성하도록 지시하거나 상납받았는지 캐물었다. 뒷돈의 구체적 사용처도 조사했다.

검찰은 조사 결과에 따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정 전 부회장이 소환됨에 따라 정준양(67) 전 포스코 회장의 검찰 출석도 초읽기에 들어갔다.

검찰은 포스코건설 비자금 의혹, 포스코와 협력업체 코스트의 불법거래, 성진 지오텍 고가매입을 비롯한 부실 인수·합병 등 세 갈래 포스코 수사의 정점에서 정 전 회장이 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이들 수사를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정 전 회장을 소환할 것으로 보인다.

정 전 부회장은 2009~2012년 포스코 건설 사장을 지냈다. 베트남 고속도로

공사현장의 비자금 조성과 토목환경사업본부 임원들의 금품수수 등 지금까지 불거진 의혹 대부분이 그의 사장 재임 때 벌어진 일이다.

검찰은 포스코건설 전현직 임원들을 광범위하게 조사해 정 전 부회장이 ‘영입비’ 명목으로 비자금을 조성하라고 지시한 정황을 포착했다. 정 전 부회장은 중학교 동문인 컨설팅업체 1사 대표 장모(64·구속기소)씨에게 사실상 브로커 역할을 맡겨 국내외 공사현장의 하청업체 선정에 개입하고 뒷돈을 챙겼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연합뉴스

광주일보 김진수·백희준 기자 ‘이달의 기자상’

한국기자협회 ‘호남선 KTX’...구명난 안전 수상작 선정

한국기자협회는 제 296회 ‘이달의 기자상’ 수상작으로 광주일보 사회부 백희준 기자와 사진부 김진수 기자의 ‘호남선 KTX 차체 파손, 구명난 안전’ 기사(광주일보 4월 3일자 1면)을 선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지역 취재보도 부문 수상작인 광주일보 보도는 지난달 2일 개통된 호남선 KTX가 개통 첫날부터 차체가 파손됐지만, 적절한 정비과정 없이 승객 안전을 무시하고서 내달린 사실을 최초로 확인하고 연속 보도했다.

한국기자협회는 백 기자 등이 ‘개통 첫날 차체파손 불이 고 달린 호남선 KTX’라

는 사진과 함께 KTX를 운영하느라 코레일 측의 안전 불감증을 지적함으로써 안전성 점검 계기를 마련하고 국민적 관심을 이끌어냈다고 평가했다. 시상식은 다음달 1일 오전 11시 서울 한국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열린다. /김형호기자 khh@

매 각 공 고
“요양병원” 운영자를 모집합니다
(매매 및 투자자)

위 치 : 광주광역시 남구 월산동 919-1번지 (40m 대로변 접면위치, 건강관리협회 건너편)
대 지 : 522.3㎡(158,15평)
연 면 적 : 2,073.86㎡(627,96평)
층 수 : 지하1층, 지상8층
건축물용도 : 병원(요양병원)
허 가 번 호 : 2013-건축과-신축허가-108호(2013.10.18)
토지소유자 : 서양새마을금고
건 축 주 : 서양새마을금고
공사완공예정일 : 투자자 계약 후 3개월 완공 예정

※ 매각사유
- 대출관련 유입물건을 매각합니다.
- 유입당시 공정을 40% 진행되어 있는 요양병원 건물로서 요양병원을 운영하고자 하신분께 매각하고자 합니다.
※ 계약즉시 토지, 건물에 대하여 투자자에게 소유권 이전

서양새마을금고
전화문의 010-7659-8900

가슴의 소리를 듣고
고객의 입장에서 공감하며
전문성으로 만족스런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는
서명심 변호사입니다.

형사
민사
가사
행정

[사기·성범죄 / 개인회생·파산
이혼·재산분할·위자료 / 상속]

상담 ▶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법률사무소 名家 변호사 서명심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로 70, 동산빌딩 1층(법원 버스정류소)
대표전화 062)227-7223 팩스 062)227-7224

**빌려주고 못 받은 돈
회수 해 드립니다.**

(금융위원회 99-7호)

세일신용정보(주)는 국내 각 금융권을 대표하는 새마을금고연합회, 삼성카드, 신한카드, 한국캐피탈, 전북은행이 주주로 참여한 믿을 수 있는 회사입니다.

- 차용증, 확정판결을 받았으나 뚜렷한 대인이 없는 경우
- 채무자가 타인명의로 재산을 빼돌린 경우
- 강제집행 등 법 조치를 하고 싶은데 채무자의 재산내역을 알지 못하는 경우
- 채무자를 상대로 법적 조치를 해야 할 때
- 기압류/소송/집행까지
- 전담 법무사와 Non-stop 서비스
- 민사채권, 물품대금, 공사대금, 미수금 등
- 채권회수는 타이밍 싸움입니다.
- 결정을 미루는 사이 채무자는 재산이전, 폐업, 소재불명으로 이어집니다.
- 빠른결정만이 소중한 재산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 재산조회비용 無 ☑ 착수금 無

영업사원 모집

대표전화 : 062) 531-5990 010-2069-5958

세일신용정보(주)